



1597년 음력 9월16일, 명량(울돌목) 해전을 승리로 이끈 진짜 주인공은 좁은 해협을 빠른 물살을 이용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풍전등화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이름없는 진도의 민초(民草)들이었다. 진도 녹진전망대에 세워진 명량대첩 조형물.

명량해전 '불멸의 신화' 속을 걷다

진도 명량해전 관련 유적지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알거나 할랑가~” 영화 ‘명량’ 마지막 장면 속에서 처절했던 해전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자 판옥선 갑판 밑에서 혼신을 다해 노를 저어던 병사 한 명이 낮두리처럼 말한다. 울돌목의 극적인 승리는 빠른 물살을 이용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리더십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이름 없는 민초(民草)들의 헌신이 바탕이 됐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1597년(선조 30년) 음력 7월 경남 거제 칠천량 해전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조선 수군은 불과 두 달 뒤인 9월 16일 해남~진도 사이 울돌목에서 일본 함대를 격파하고 제해권을 되찾았다. 영화 ‘명량’의 흥행에 따라 진도군 군내면에 자리한 정유재란 순절(殉節)묘역과 왜덕산(倭德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유재란 순절묘역 초혼 묘=진도대교를 건너 18번 국도를 따라 고군 농공단지 방향으로 10km가량 진행하다 보면 순절묘역에 닿는다. 북서방향의 울돌목을 바라보는 야산 기슭의 묘역에는 232기의 무덤이 있으며, 2001년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제216

울돌목 해전 등서 전사한 향민 무덤 232기 ‘순절묘역’

해류 타고 떠내려온 왜군 시신 묻어준 ‘왜덕산’ 눈길

호로 지정됐다. 울돌목 해전에서 전사한 진도출신 조영람·명신 부자(父子)를 비롯해 이름없이 입진·정유재란에 종군했던 현지 향민(鄕民)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명량대첩후 조선 수군이 곧바로 신안 당사도로 후퇴하면서 진도는 상륙한 왜군에 의해 큰 희생을 치렀다. 향토사학자 박주언(69)씨는 순절묘역에 대해 “명량해전 뿐만 아니라 명량에 한 달여 앞서 벌어진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진도 주민들도 묻혀 있다”며 “시신을 못 찾으면 씻김굿을 하고 밤나무에 이름을 써서 묻는 초혼장(招魂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군 시신 묻어준 왜덕산=진도군 고군면 내산리 내동마을 동쪽의 야트막한 야산은 왜덕산(倭德山)으로 불린다. ‘왜

군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의미를 띤 이곳을 왜 이런 이름을 얻었을까? 주민들에 따르면 울돌목 전투가 끝난 후 해류를 타고 마을 앞 바닷가로 왜군들의 시신이 떠밀려오자 주민들이 시신을 거둬 묻어주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당초 100여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개간과정에서 일부 유실되고 현재 50여기가 남아 있다. 마을입구에서 만난 이무진(56)씨는 “지금 은 방파제로 막혀있지만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바닷물이 마을 앞 안통까지 들어왔다”면서 “선진으로부터 왜덕산 관련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왜덕산 존재가 외부에 알려진 때는 1990년대 중반 무렵. 1998년 8월 일본 임진왜란 연구회 회원 10여 명이 현지를 찾았고, 2006년 5월 일본 히구마 다케요시(히로시마 수도대학) 교수가 다시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가 언론매체에 기고하며 일본 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후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일본 장수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고향인 일본 에히메(愛媛)현 주민들이 해마다 명량축제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전란 당시 적군인 왜군의 시신을 수습해 매장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 향토사학자 박주언 씨는 “바닷가 사람들은 시신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바다에서 시신을 보면 당연히 건져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속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어 “왜덕산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전사(戰死)에서 싸우던 적의 시신을 수습해 안장한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진도인들의 인간애,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곳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내동마을 주민 이무진 씨가 왜덕산 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진도군 고군면 도평리에 있는 ‘정유재란 순절 묘역’.

진도군, 농어촌 개발에 925억원 투입

진도군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925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2015년도 공모사업 준비와 현안 사업 선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국 최초 ‘진도군 농·농촌·식품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사업으로 지난번 소재지(70억원), 오일시권역 종합 정비사업(48억원) 등의 공모에 선정됐다. 올해는 군내면 소재지(70억원), 초사권역(40억원), 보전권역(40억원), 도목지구 경관개선 사업(20억원), 광석권역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지원(5000만원) 등에 선정됐다. 내년에는 진도를 주거환경 개선사업(60억원), 광석권역(40억원), 신기 전원마을(24억원), 남동 전원마을 경관개선사업(10억원), 해장 문화마을(5억원)에 공모한 후 예산 확보에 나섰다. 특히 죽림권역(50억원), 동넉마루권역(49억원), 둔지권역(53억원), 임회면 소재지(70억원), 조도면 소재지(70억원), 금골권역(40억원), 남동 전원마을(85억원), 안농 리모델링사업(31억원) 등 21개소에 9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내일 완도서 여성농업인 전남도대회

전남지역 여성 농업인들이 완도에 모여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완도군은 13일 완도 농어민 체육센터에서 제6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대회(이하 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 대회는 전남 12개 시·군의 한여농회원과 가족 등 1200여명이 참가하며 이날 연 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다. 도 대회는 시·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농업인 시상, 우수 농자재 전시·홍보, 화합행사 및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부장 eichung@

‘여풍당당’ 해남군

해남군 여성 공무원들의 사무관 진출이 눈에 띄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5일자 인사로 김미경 홍보담당, 전영희 화산면장, 김미숙 문내면장, 김정심 보건행정담당 등 4명의 여성 공직자가 사무관(5급) 교육대상자로 선정, 기존의 여성면장 1명과 함께 모두 5명이 근무하게 됐다. 군이 이번 인사에서 여성관리자를 과감하게 발탁하면서 해남군 5급 이상 간부 40명 중 13%를 차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담당 주사인 6급 승진도 7명이나 됐다. 홍보담당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며 능력을 평가받은 김미경 홍보계장은 “여성이라 해

전영희 화산면장 등 4명 승진...5급이상 간부중 13%

서 특별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신임 김미숙 문내면장은 “면민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민원 현장에 면장실을 설치한다는 각오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정심 보건행정 담당도 “부드러우면서도 능률적인 여성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영희 화산면장은 “낮은 자세로 면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



김미숙, 전영희, 김정심, 김미경. 한편 해남군 공무원(729명) 가운데 여성 공직자는 247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 (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옵션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지역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필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 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무인텔 적합형 쌍암동 1787㎡(540) 은행 7억2천 위치는 최고임 공시지가 14억 3천 상당원함 12억 6천
- 유동 병원, 시속 적합 대지 769㎡(240) 건물 ㎡(81) 15억
- 북구 병원, 요양시설 적합 대지1057㎡(320) 건물 6487㎡ 34억
- 화정역 부근 6차선 도로 준주거 1105㎡(334) 건물 423㎡(128) 식당, 병원, 오피스텔 등 적합
- 오양병원 옆 21000㎡(6370) 병원 2693㎡(816) 150병상, 신축할 병원은 400병상 허가있음 감정 42억선 대충 26억 자산 감정 53억선 매도 42억 직접 상당 원함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 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오피스텔 등 적합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8㎡(1200) 18억 2천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15억

투자 / 매도 / 교환

- 차평중학교근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천 수익 5억2천
- 광주역 앞 소상도점 상업지 448㎡(135) 원룸, 생활주택 적합 평당 250만원 (3억3700)
- 쌍촌동 5.18공원근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가게와 인접 원룸 15개 5억 4천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 건물 418㎡(126) 인접과 원룸 5개 투룸 4개 대충 1억5천 매도 6억4천
- 조선대 앞 동명동 대로변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외원룸 18개 보증금 1억2천선 월 500천 수익 8억7천

임대

- 쌍촌동 기도생활주택 1.2차 임대, 매매, 임대는 보증금 500 월 400천이나 임대조건은 조정 호텔급 시설, 사생활 보호에 완벽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사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첨단 중심상권 1층 구분점포 85㎡ 매3.5억(보5천, 월150만포함)
- ▶ 셀프세차장 640㎡ 8억5천 (방문상담요망)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차이즈 입점)
- ▶ 서구 쌍촌동 5층 상가주택 매 6.8억(보 2100만, 월400만포함)
- ▶ 서구 풍암동 대로변 3층건물 매 9.7억(보5천,월520만포함)
-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 상무, 첨단 대형물건 다수보유(매수상담환영)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중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매 12억(창고적합)
-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7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매39억
- ▶ 서구 마곡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